

중국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이야기 표현과 상징성 표현 비교*
**Comparison of Story Expressions and Symbolic Expressions
of Sandplay Therapy between Korean Chinese Parents and
Children both Separated and Living Together**

김 유 선**
Kim, Yu Seon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in Yanbian, China, where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symbolic expressions during sandplay therapy between ethnic Korean children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ethnic Korean children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The researcher selected 10 children who were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10 children who were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for sandplay therapy. These children participated in eight sandplay sessions of 40 minutes duration over a period of three weeks. We classified the differences in symbolic expressions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use of figures, use of sand, use of space and process of sandplay. Although we did not set any specific themes, instead letting the children make their sand pictures as they wished, the two groups displayed different emotions toward their mothers and fathers. The participants also exhibited verbal and nonverbal differences as well as different attitudes toward sandplay therapy. These results demonstrates that sandplay therapy is an effective tool for therapeutic work with children in general who have problematic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Keywords : sandplay therapy, children living with their parents, children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story expression, symbolic expression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킨들언어발달센터 놀이치료사 (mssk55@naver.com)

I. 서 론

중국 조선족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약 220만 명이다(법무부, 2015). 이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대의 민족 집단이다.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내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의 국내체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체류 중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강진웅, 2012; 구지영, 2011).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중국인 중 조선족이 6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족은 2015년 1월 59만 명에서 2016년에는 64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한국 내 조선족 취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조선족 내의 가족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해체에 따른 가정의 구조 변화 역시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기러기 가족, 조손 가족, 한 부모 가족, 별거 가족 등이 등장하고 있다(안병삼, 2009).

중국 내 대도시와 한국, 일본으로 조선족의 인구 이동은 장기적으로 이혼율의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에 따른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결손가족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어 2명 중 1명이 결손가정 학생이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조선족 학생 교육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김단, 2012).

현재 중국내 조선족에서 부모의 이혼, 취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교육국의 통계에 따르면, 부모 부재를 경험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약 60%가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박정균, 2008). 2명 중 한명 꼴로 부, 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구한 중국 조선족 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형태를 보면 조손가정이 40%로 가장 높고 한 부모 가정이 20%, 친척집, 위탁가정이 20%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별거한 기간은 5년 이상 별거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3년 미만인 32%였다.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부모와 별거한 상태로 장기적인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와 동거할 때와 별거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정을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4% 학생들이 혼자 지내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부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병삼, 2009).

중국 조선족 내에 부모와 별거하는 아동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들에 비해 부모와의 정상적인 교류가 부족하고 보호자들이 아동의 정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 소심함, 감정에 취약, 강한 반항심,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충동적, 신경증, 학업 성적부진, 이상한 버릇 및 문제행동 등 정서, 행동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임설매, 2013). 학교부적응 행동이 지속될 경우 발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회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모래놀이치료는 언어적인 표현을 어려워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하는 조선족들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법으로, 조선족 아동이 만든 모래상자에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언어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상자에서 모래, 물 그리고 많은 피겨를 사용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자기 안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작업이다(Barbara, 2005).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개발된 Lowenfeld의 세계기법(world technique)을 Kalf가 모래상자와 Jung의 분석심리학을 응용하여 모래놀이치료라고 불렀다(이유경, 2003). 모래놀이치료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이다. 모래상자와 모래 그리고 많은 피겨를 사용하여 아동은 모래상자에서 자기의 내면을 다양한 주제로 모래상자에 표현하게 되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에서 경험한 이미지를 모래상자에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을 드러낸다. 모래놀이치료는 자신이 몰랐던 드러나지 않았던 억압되어 의식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잘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이야기란 내담자가 모래상자를 표현하고 그 상자에 대해서 치료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야기 하는 것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만든 세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연결 짓는 경험 뿐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내담자는 그런 과정에서 기쁨, 슬픔, 고통, 좌절, 환희 등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 하게 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드러난 핵심을 구체화 시키고 충분히 다시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게 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모래놀이치료에서는 모래상자의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문채련, 2010). 치료자는 내담자가 만든 모래상자 뿐 아니라 내담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함으로써 내담자 개인 무의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박성민, 2011).

김유숙, 야마나카(2005)에 따르면 모래놀이치료에서 상징물은 내담자의 개인적이고, 선택적이며, 문학적이고 영적이며 신체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 내담자의 잠재적 이미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모래놀이치료를 하는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미리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것을 정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내담자가 진열장을 관찰 할 때 상징물은 치료적 역할을 하

게 된다.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상징물을 통해 내적세계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내담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불러 일으켜진다. 이것은 내담자가 상징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상징물을 통한 창조물을 형성해 가면서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상징물들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매체로서 내담자에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내담자는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더욱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해 내고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재적인 치유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으로 나누어 모래놀이치료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래놀이치료에서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상징성 표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모 별거 아동의 경우 조선족 연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 지금 현재 부, 모 둘 다와 분리되어 대리양육자(조부모, 이모, 삼촌 등)와 함께 사는 아동 10명을 선발한다.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조선족 연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 지금까지 부, 모와 한번의 분리경험도 없이 현재 부, 모 둘 다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10명을 선발한다.

2. 연구도구

모래놀이치료에서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상징성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장미경(2017)이 제안한 모래놀이치료 범주 체크리스트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모래놀이치료 범주 체크리스트는 표 1에 제시하였다.

3. 연구절차

총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

표 1. 모래놀이치료 범주 체크리스트

	사람	아기, 어린이, 어른, 부부, 가족
	건축물	빌딩, 집, 타워
(1) 피겨의 범주	동물	육지동물, 바다동물, 조류, 야생동물, 가축, 용 같은 상상의 동물, 공룡 같은 고대의 멸종 동물
	상상 및 원형적 존재	상상의 동물(유니콘, 페가수스, 용, 말), 상상의 인물(마법사, 마술사, 요정, 마녀, 동화나 만화 등장인물, 영웅), 신화적 존재(제우스, 헤라, 마고할미, 단군, 용녀 등 신화 속의 등장인물), 사람(왕, 여왕, 왕자, 공주, 요정, 마녀, 마법사), 모양사위 또는 사각형, 만다라, 정육면체, 구, 원, 정사각형, 삼각형, 피라미드, 태양, 달, 별), 귀중한 것(구슬, 비즈, 황금, 보물 상자, 크리스털, 유리 물체, 보물을 담고 있는 광물)
(2) 모래놀이 치료과정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모래상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고 모래놀이치료 범주 체크리스트 범주 중 해당항목을 체크하였다. 항목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	
(3) 모래의 사용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모래의 사용 상태를 보고 모래놀이치료 범주 체크리스트 범주 중 해당항목을 체크하였다. 항목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	
(4) 모래상자 공간의 사용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모래상자에 표현된 공간 사용의 상태를 보고 모래놀이치료 범주 체크리스트 범주 중 해당항목을 체크하였다. 항목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	

고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양육자를 만나 접수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한 회기 당 40분 동안 진행되고 총 8회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장소는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개별공간에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다. 모래상자와 다양한 피겨를 배치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래놀이치료를 하는 동안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녹화, 기록을 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놀이치료 트레이닝을 받은 연구자 1명, 총 2명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 보호자에게 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미리 준비한 기록지에 참여자의 언어, 비언어적인 표현, 행동, 표정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모래놀이치료가 끝난 뒤 대상자가 나가면 모래상자의 사진을 찍었다. 사전에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 대상자 20명(부모 별거 아동 10명, 부모 동거 아동 10명)의 상담사례와 연구 기간 동안 만들어진 총 158개(부모 별거 아동 78상자, 부모 동거 아동 80상자)의 모래 상자를 수집하였다. 8회기 녹화 동영상과 각 회기에 꾸며진 모래상자 사진과 대조하여 모래놀이치료 피겨의 사용, 모래놀이치료 과정, 모래의 사용, 모래상자 공간의 사용 범주를 통해서 상징성을 분류하고 체크하였다. 모래 상자에 나타난 상징성은 분석 시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사용했을 경우에도 하나의 종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범주별로 빈도분석을 하여 비교하였다($t = \frac{\text{총 상자개수}}{\text{상징성 실제사용개수}}$). 모래놀이치료에서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상징성 표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피겨의 사용

1) 사람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사람’ 피겨 사용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아기(16.6%), 어린이(15.3%), 어른(14.1%), 가족(8.9%), 부부(7.6%)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 동거 아동은 어른(35.5%), 부부(25.0%), 아기(22.5%), 가족(22.5%), 어린이(21.2%)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사람’ 피겨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부부(17.4%) 피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사람 피겨 사용

	부모 별거		부모 동거	
아기	13	16.6%	18	22.5%
어린이	12	15.3%	17	21.2%
어른	11	14.1%	28	35.0%
부부	6	7.6%	20	25.0%
가족	7	8.9%	18	22.5%

2) 건축물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건축물’ 피겨 사용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집(26.9%), 타워(6.4%)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집(52.5%), 타워(18.7%)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건축물’ 피겨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의 경우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표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건축물 피겨 사용

	부모 별거		부모 동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집	21	28.9%	42	52.5%
타워	5	6.4%	15	18.7%

3) 동물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동물’ 피겨 사용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야생동물(38.4%), 바다동물(24.3%), 멸종동물(23.0%), 가축(12.8%), 육지동물(8.9%), 조류(7.6%)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바다동물(17.5%), 가축(17.5%), 육지동물(15.5%) 조류(13.7%), 야생동물(10.0%), 멸종동물(7.5%)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바다동물(6.8%), 야생동물(28.4%), 멸종동물(15.5%) 피겨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생동물과 멸종동물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육지동물(6.1%), 조류(6.1%), 가축(4.7%) 피겨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동물 피겨 사용

	부모 별거		부모 동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육지 동물	7	8.9%	12	15.0%
바다 동물	19	24.3%	14	17.5%
조류	6	7.6%	11	13.7%
야생 동물	30	38.4%	8	10.0%
가축	10	12.8%	14	17.5%
멸종 동물	18	23.0%	6	7.5%

4) 상상 및 원형적 존재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상상 및 원형적 존재’ 피겨 사용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상상인물(32.0%), 상상동물(15.3%), 신화적 존재(14.1%), 사람(11.5%), 물건(10.2%)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귀중한 것(27.5%), 상상인물(10.0%), 상상동물(7.5%), 사람(3.7%) 신화적 존재(2.5%)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상상동물(7.8%), 상상인물(22.0%), 신화적 존재(11.6%), 사람(7.8%) 피겨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상인물과 신화적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물건(17.3%) 피겨를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상상 및 원형적 존재 피겨 사용

	부모 별거		부모 동거	
상상 동물	12	15.3%	6	7.5%
상상 인물	25	32.0%	8	10.0%
신화적 존재	11	14.1%	2	2.5%
사람	9	11.5%	3	3.7%
물건	8	10.2%	22	27.5%

2. 모래놀이치료 과정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모래놀이치료 과정’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피겨를 자주 바꾸는(38.4%), 몰입하는(37.14%), 신중한(37.1%), 피겨 위치를 자주 바꾸는(37.1%), 주저함 없는(35.6%), 서두르는(30.7%), 작업하는 위치를 자주 바꾸는(21.7%), 상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19.2%), 장면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16.6%), 흥분된(15.3%), 흥미진진한(1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몰입하는(51.2%), 서두르는(50.5%), 주저함이 없는(48.7), 흥미진진한(47.5%), 신중한(46.2%), 흥분된(31.2%), 피겨를 자주 바꾸는(22.5%), 피겨 위치를 자주 바꾸는(18.7%), 상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5.0%), 작업하는 위치를 자주 바꾸는(3.7%), 장면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3.7%)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피겨를 자주 바꾸는, 피겨 위치를 자주 바꾸는, 작업하는 위치를 자주 바꾸는, 장면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상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표 6.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 비교

	부모별거		부모동거	
신중한	29	37.1%	37	46.2%
몰입하는	29	37.1%	41	51.2%
흥분된	12	15.3%	25	31.2%
흥미진진한	12	15.3%	38	47.5%
서두르는	24	30.7%	40	50.0%
주저함 없는	27	34.6%	39	48.7%
피겨를 자주 바꾸는	30	38.4%	18	22.5%
피겨 위치를 자주 바꾸는	29	37.1%	15	18.7%
작업하는 위치를 자주 바꾸는	17	21.7%	4	5.0%
장면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13	16.6%	4	5.0%
상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15	19.2%	6	7.5%

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피겨, 피겨 위치, 작업하는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몰입하는,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몰입하는, 흥미진진한 경우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래의 사용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모래의 사용’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주로 모래를 만짐(51.2%), 모래를 파거나 피겨를 묻음(48.7%), 모래를 일부 또는 모두 다른 곳에 던져냄(25.6%), 모래 위에 피겨를 올려놓기만 함(8.9%), 모래를 만지지 않으려 함(5.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모래 위에 피겨를 올려놓기만 함(45.0%), 주로 모래를 만짐(36.2%), 모래를 파거나 피겨를 묻음(25.0%), 모래를 일부 또는 다른 곳에 던져냄(15.0%), 모래를 만지지 않으려 함(13.7%)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주로 모래를 만짐, 모래를 파거나 피겨를 묻음, 모래를 일부 또는 모두 다른 곳에 던져냄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로 모래를 만짐, 모래를 파거나 피겨를 묻음의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모래를 만지지 않으려

표 7. 아동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모래의 사용 비교

	부모별거		부모동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모래를 만지지 않으려 함	4	5.1%	11	13.7%
주로 모래를 만짐	40	51.2%	29	36.2%
모래를 파거나 피겨를 묻음	38	48.7%	20	25.0%
모래 위에 피겨를 올려놓기만 함	7	8.9%	36	45.0%
모래를 일부 또는 모두 다른 곳에 덜어냄	20	25.6%	12	15.0%

함, 모래 위에 피겨를 올려놓기만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모래 위에 피겨를 올려놓기만 하는 경우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간의 사용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표현한 ‘공간의 사용’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은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46.1%), 짝 찬(29.4%), 적절히 사용된(27.8%), 드문드문한(25.6%), 피겨가 심하게 많이 놓인(25.6%), 중심이 비어 있는(19.2%), 상자 바깥까지 피겨가 놓여진(16.6%)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적절히 사용된(43.7%), 짝 찬(22.5%), 피겨가 심하게 많이 놓인(18.7%),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12.5%), 드문드문한(8.7%), 상자 바깥까지 피겨가 놓인(8.7%), 중심이 비어 있는(6.2%)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주로 짝 찬, 드문드문한,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 상자 바깥까지 피겨가 놓인, 중심이 비어 있는, 피겨가 심하게 많이 놓은 경우에서

표 8.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공간의 사용 비교

	부모별거		부모동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짝 찬	23	29.4%	18	22.5%
드문드문한	20	25.6%	7	8.7%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	36	46.1%	10	12.5%
상자 바깥까지 피겨가 놓인	13	16.6%	7	8.7%
중심이 비어 있는	15	19.2%	5	6.2%
피겨가 심하게 많이 놓인	20	25.6%	15	18.7%
적절히 사용된	22	27.8%	35	43.7%

높게 나타났다. 특히 드문드문한,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 중심이 비어 있는 경우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은 부모 별거 아동에 비해 적절히 사용된 모습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 두 집단에게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고 두 집단 사이의 상징성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상담했던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 10명과 부모 동거 아동 10명, 총 20명의 158개의 모래상자 사진과 축어록을 수집하였다.

상징성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류된 자료를 중심으로 축어록과 모래상자 사진을 검토한 후 연구 참여자의 피겨의 사용, 모래의 사용, 모래상자 공간의 사용 그리고 모래놀이치료 과정 총 4개의 범주에 따라 최종 분류하였다. 모래 상자에 나타난 상징물은 분석 시 같은 종류를 여러 개 사용했을 경우에도 하나의 종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람’ 피겨 사용에서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아기와 어린이였고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어른과 부부 그리고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내담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과 현실적인 인물을 상징한다. 부모 별거 아동의 모래 상자에서 아기와 어린이가 자주 등장했는데 부, 모나 성인이 없이 등장한 경우가 있었다. 어머니의 상징은 신화적 사고에서는 태모이고 모든 생명의 기원이자 양육자이고 보호자이다. 부모 별거 아동에서는 양육자이며 보호자의 존재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따뜻한 양육자를 모래상자에 놓으면서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 별거 아동은 어린 시절에 부, 모와 분리를 경험하고 상실의 감정을 경험한 아동으로 현재는 제 3의 양육자와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모 별거 아동은 아직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기와 어린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의 아동들 특히 여자 아동은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어린 시절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돌봄과 양육을 스스로 함으로써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표현하는 것에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어록을 보면 부모 별거 아동이 가족을 이야기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주 등장하는 반면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별거 아동은 떨어져 사는 부, 모가 아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조모, 외조모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피겨 사용에서는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집과

타워 둘 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의 경우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집 피겨를 더 적게 사용한 이유는 아동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중에서 집은 의식, 무의식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보호자, 피난처인 측면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부모 별거 아동 중에서는 부, 모와 분리 되고 양육자가 계속 바뀌면서 아동이 살고 있는 집 또한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별거 아동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집을 안전과 보호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부모 동거 아동 보다 집 피겨의 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의 위치나 분위기 또한 다른 차이를 보였다. 부모 별거 아동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고 분위기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표현한 반면 부모 동거 아동은 주변에 다른 집과 사람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표현하고 다른 이웃들과 사이가 좋다고 표현했다.

‘동물’ 피겨 사용에서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바다동물, 야생동물, 멸종동물이었고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육지동물, 조류, 가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야생 동물 피겨를 부모 동거 아동은 바다 동물과 가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의 모래상자와 축어록에 의하면 공격성이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 등장하는데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을 강한 동물로 표현하면서 본능적인 에너지와 힘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은 외동이다. 반면 부모 별거 아동의 경우 외동인 경우도 있지만 같은 집에서 사촌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가축은 친구의 의미를 지닌다. 축어록을 보면 동물들은 부모 동거 아동에게는 친구, 가까운 존재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도 없고 친구와 노는 시간도 적는 아동에게 동반할 친구가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상 및 원형적 존재’ 피겨 사용에서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상상 동물, 상상인물, 신화적 존재, 사람이었고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의 모래상자나 축어록에 의하면 세계에 존재하는 악과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 괴수나 괴물이 등장할 때 신이나 영웅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영웅은 괴수나 괴물과 맞서서 초반에는 시련을 겪게 되지만 나중에는 괴수나 괴물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한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 모의 분리와 부재를 경험하고 현재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간 부, 모를 이해하는 감정 동시에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양가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자신을 영웅으로 표현함으로써 괴수나 괴물에 맞서 싸우면서 물리치거나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물, 보석, 귀중한 것을

포함한 물건 피겨의 사용비율은 부모 동거 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lf(1983)에 의하면 보석은 진정한 자기의 상징이기도 한다. 부모 동거 아동의 축어록에 의하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했다. 즉 배를 타고 진정한 자기(Self)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놀이치료 과정’ 표현에서는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보다 피겨를 자주 바꾸는, 피겨 위치를 자주 바꾸는, 작업하는 위치를 자주 바꾸는, 장면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상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표현을 많이 했고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신중한, 몰입하는, 흥분된, 흥미진진한, 서두르는, 주저함 없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어록과 녹화영상에 의하면 부모 별거 아동은 피겨를 선택할 때 피겨를 자주 바꾸고 피겨 위치를 자주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 별거 아동의 불안과 많은 연관이 있다. 피겨를 어디에 놔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뺐다 다시 집어 넣었다가를 반복하는 아동도 있었고 계속해서 피겨 위치를 바꾸거나 작업하는 위치를 옮기는 아동도 있었다.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힘들어하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아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모래놀이치료에서 자기 얘기를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는 아동이 있었다. 무의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어색해 하거나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모래상자를 만들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양육자에 의해 비자발적인 참여자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할 때 초기에 부모 별거 아동은 흥미로워 하지 않았고 몰입하는 아동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하면서 초기에서 중기 그리고 말기로 넘어갈 때 점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아동이 나타났다. 모래놀이치료 초기에 부모 별거 아동은 피겨를 선택하지 못한 아동도 있었으며 피겨장 주위를 돌며 ‘못 고르겠어요’라고 말한 아동도 있었다. 부모 별거 아동은 비자발적인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 별거 아동 중 모래상자를 만들면서 상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아동도 있었다. 축어록에 의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 놔야 예뻐요?’ ‘선생님이 골라주세요’라고 말했다. 부모 별거 아동은 부, 모가 아닌 제3양육자와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도 다른 부, 모의 형제 자식들과 같이 사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아동은 다른 아동들보다 의기소침하고 눈치를 자주 보고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또한 치료사의 눈치를 보거나 소심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경험이 적고 양육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을 것이다. 그에 따라 부모 별거 아동은 치료사가 피겨를 선택하고 어떻게 모래상자를 만들어야 예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고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반면에 부모 동거 아동은 피겨를 선택할 때 신중한 모습과 주저함 없이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남아의 경우 몰입하고, 흥분

하고 흥미진진해하며 주저함 없이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신중하고 몰입하여 피겨를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 동거 아동의 경우 부, 모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는 아동이 많았다. 그래서 모래놀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 아동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 별거 아동보다 몰입하여 집중하고 흥미진진한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모래의 사용’ 표현에서는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보다 주로 모래를 만짐, 모래를 파거나 피겨를 묻음, 모래를 일부 또는 모두 다른 곳에 던져냄 표현을 많이 했고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모래를 만지지 않으려함, 모래 위에 피겨를 올려놓기만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 모두 마른모래를 사용했다. 하지만 모래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부모 별거 아동은 파괴적으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겨들을 특히 사람들을 모래에 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모래놀이실에 들어와서 치료사와 인사를 하는 동안이나 모래상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에도 모래를 계속 만지는 아동들이 많았다. 모래를 만지면서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고 말한 아동도 있었다. 부모 별거 아동 중에서는 치료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래를 만지는 아동도 있었다. 그런 아동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했고 가족얘기를 하는 도중에 모래를 많이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 모래를 만지면서 조금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공간의 사용’ 표현에서 부모 별거 아동이 부모 동거 아동보다 짝 찬, 드문드문한,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 상자 바깥까지 피겨가 놓인, 중심이 비어 있는, 피겨가 심하게 많이 놓인 표현을 많이 했고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적절히 사용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 상자의 공간을 적절히 사용한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부모 별거 아동은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거나 피겨가 심하게 놓여진 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별거 아동은 피겨를 적절히 쓰기 보다는 부모 동거 아동에 비해 모래 상자가 짝 차거나 피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중심이 비어 있거나 두드러진 빈 공간이 있는 아동이 많았다. 그래서 부모 동거 아동이 부모 별거 아동보다 모래상자 공간의 사용에서 적절히 사용한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이 상징성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제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으나 가족과 부, 모에 대한 감정, 언어적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차이,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태도에 차이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모래놀이치료가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치료 개입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된다고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진웅 (2012).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중중 조선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6(4), 96-146.
- 김단 (2012). 부모들이 출국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중국 연변 조선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2). 연변지역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41-1157.
- 구지영 (2011).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 칭다오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 40(1), 421-457.
- 김유숙, 야마나카 (2005). *모래놀이치료의 본질*. 서울: 학지사.
- 문채련 (2010). *모래상자 이야기*. 파주: 이담북스
- 박성민 (2011).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모래놀이치료에서의 표현양상과 이야기 비교.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균 (2008). 인력수출로 인한 가정구조의 변화가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5). 외국국적동포 현황, <http://www.moj.go.kr/HP/MOJ03/index.do>
- 안병삼 (2009). 국가 이동현상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가족해체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4(3), 153-177
- 이유경 (2003). 분석심리학적 신화읽기 의식의 발달사로 보는 신화의 세 단계. *미학예술학연구*, 17, 207-239.
- 임설매 (2013).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Barbara A. T.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Trans. into Korean in 2009)
- Kalff, D. M. (1983). *Images of the Self*. London: McGraw.

투고일 : 2018. 04. 29

수정일 : 2018. 06. 17

게재확정일 : 2018. 06. 18